

8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뜨거운 가슴 차가운 두뇌

협회 주최로 지난 18일 대전에서 브로일러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19일과 20일 양일간은 양계업계의 최고경영자 30여명이 참여하여 숙식을 같이 하면서 양계산업에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가 특히 기자의 관심을 끈 것은 마지막날의 부산 오경협업농장 김중경 부사장의「양계장에서의 컴퓨터 활용의 실제」와 김중경사장의「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수 없는 오경농장의 현황」 설명이었다.

오경농장은 이미 본지에서도 소개한바 있는 것처럼 협업형태로 종업원 모두가 농장의 주인으로 되어 있다. 닭의 사육규모가 60여만수로, 농장수도 40여개에 이르는 거대한 한개의 양계조합으로 이해하면 빠르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여직원 2명과 기술지도하는 남자직원 1명을 합해 3명이 움직여 나간다.

최근 작은정부 (Small Governmen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경농장이야말로 40가구의 사료

를 비롯한 약품 등 모든 생산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생산된 계란과 계분을 공동으로 판매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조합들이 방대한 기구에 많은 인건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이 벽찬 업무중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업무를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다. 김중경 사장은 대학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하고 빈손으로 들어와 초창기에 피눈물나는 고생과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192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A 마살의 캠브리지대학 교수 취임연설에서 런던의 동쪽 끝 빈민가를 가보라고 권하고, 캠브리지 출신 기업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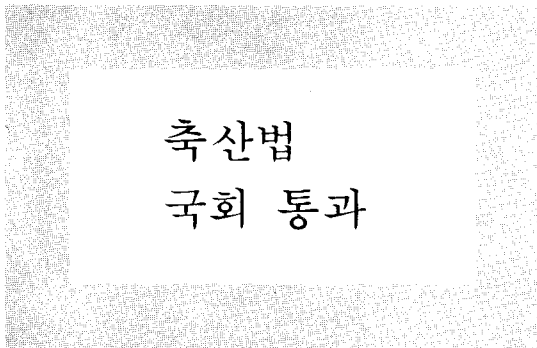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두뇌의 소유자가 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기업인이 종업원을 생각하는 따뜻한 가슴, 소비자를 위해서 위생적이고 품질높은 제란을 생산하는 따뜻한 가슴은 기업이 영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기업활동자체에 보람을 느끼며 소득의 분배를 기사도적 정신을 발휘하는 가난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기업이 유지될 수 없다. 냉철한 두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종업원들의 (또는 이웃)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많은 경우에 이웃의 아픔을 모르는 냉철한 가슴과 흐리멍텅한 경영을 하는 두뇌를 가진 기업인을 보게 되는 것은 슬픔이 아닐수 없다.

integration (統合) 이란 말을 자주 들을 때마다 문자 그대로 계열주체와 생산자가 하나로 통합(統合) 되려면 우리 모두가 따뜻한 가슴과 명철한 두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축산법 국회 통과

8월 3일 축산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발의자가 밝히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유

축산물의 가격등락 현상을 극소화하고 대규모 기업축산의 규제와 계열화 생산을 통하여 부업축산



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와 지력증진을 유도하며 가축개량부문을 확대 강화하고자 관계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축검사를 필요할 때에만 실시하도록 함

나. 종계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종돈업을 포함한 종축업자를 등록케 하여 가축의 개량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자는 종축의 검사·등록·검정 및 수출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를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케 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가축의 생산·사육 및 출하조절과 가축 또는 축산물의 비축·판매 및 처리방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조절상 필요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기타 사업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축협,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의 계약에 의한 계열화 생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마.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종축업자·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기준을 위반하거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초과두수에 대한 감축명령을 하고 초과사육부과금을 부과하며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 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축산진흥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사. 현실에 맞지 않는 벌칙 규정을 일부 강화하여 벌칙의 형평을 기하도록 함.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야 정부의 가격진폭 극소화, 대규모 기업축산규제, 계열화 생산을 통하여 부업축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력증진 유도 및 가축개량 확대강화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방향이 생산성 제고와 능률·효율을 강조한 기업화로 같겠으나, 아니면 농가부업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에 대한 국회의 판결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축산을 규제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의 축산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진폭을 극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생산조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양축가들로서는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법률도 이에 맞게 개정 보완 되어야 하며, 앞서 가거나 뒤따라가지 못할 경우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생산조절 명령은 시기를 잘못 맞추면 진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기업을 규제하고, 부업축산을 장려하려는 축산법이 운영에 따라서는 현재의 기업축산을 현실로 안정

하고 부업 또는 전업이 발전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로 기업축산의 보호와 부업축산의 억제라는 반대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을 치료하는데는(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동서양이 방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열병(熱病)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학에서는 옷을 벗기고 얼음 찜질을 하고 해열제를 먹이는데 비하여, 동양의학은 한약을 먹고 이불을 쓰고 땀을 흘려 열을 발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어느 방법이든 열을 내려 병을 치료하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동서양의학 어느 것도 아닌 우리 고유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오지는 않았는지 뒤돌아 볼 때가 왔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 체온계에 얼음찜질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해결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열은 내려 갈 것이다.

